

# 第243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9月17日(水)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국제교류기금
4. 2003년도국정감사참고인채택의건

### 審査된案件

- |                                |    |
|--------------------------------|----|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 1  |
| 가. 외교통상부소관                     |    |
|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 1  |
| 가. 외교통상부소관                     |    |
|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      | 1  |
| 가. 국제교류기금                      |    |
| ○ 현안보고(이라크추가파병관련) .....        | 7  |
|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    | 24 |
| 가. 외교통상부소관(계속)                 |    |
|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 | 24 |
| 가. 외교통상부소관(계속)                 |    |
|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      | 24 |
| 가. 국제교류기금(계속)                  |    |
| 4. 2003년도국정감사참고인채택의건 .....     | 36 |

(14시10분 개의)

○委員長 徐廷和 제243회국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국제교류기금

○委員長 徐廷和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상부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외교통상부소관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국제교류기금 2002회계연도기금결산, 이상 3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존경하는 徐廷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외여행객 수의 증가로 인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대체경비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으로 145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현액은 25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초과지출액 123억 5500만 원과 전용액 2억 2500만 원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251억 2800만 원이 지출되고 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예비비는 9개 목적에 총 313억 14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 262억 6800만 원이 집행되고 50억 4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아프간 난민 및 재건사업 지원으로 131억 원, 대통령 해외순방 경비로 93억 9300만 원, 2002년 월드컵행사 경비로 14억 4500만 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경비로 9억 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경비로 5억 3300만 원, 봉급조정수당 지불목적으로 8억 91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국가채권·채무의 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200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총 32억 7800만 원으로 전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우리 부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외공관의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국유화사업을 위한 것으로 2001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735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2002년도 중 상환 또는 소멸로 인해 236억 4000만 원이 감소되고 환차로 인해 69억 7300만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385억 92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2002년도 말 기준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2001년 말 대비 79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하늘색 책자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정부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금은 한국국제협력단에 829억 8400만 원, 재외동포재단에 194억 원을 출연·집행하였으며 보조금은 자료 23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단체, 여권발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16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평은 하늘색 책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4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17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를 각각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현안보고(이라크추가파병관련)

(14시44분)

○委員長 徐廷和 장관, 준비가 되셨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委員長 徐廷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파견요청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미러한미동맹정책 구상회의에 참석한 미 국방부의 톨리스 부차관보가 주한미국대사인 허버드 대사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고위 당국자에게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없고 다만 월포워츠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했을 때 이라크 정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도 협조를 구할 것인데 아마 한국 정부 쪽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개괄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를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등 다수 우방국에 대해서 파병을 동시에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요청한 파견부대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지 않고 이라크 내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능력을 가진 경보병부대를 요청했습니다. 일정지역을 전담해 가지고 독자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파견규모라는 의미로서 폴란드형 사단을 군편제의 예로써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도 구체적인 파견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토방향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거쳐 방침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고,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제의가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여론 수렴기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검토해 가면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9월 4일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고도 그 대책회의에서 아무런 논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논의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분간 여론의 향배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는 선에서……

○金德龍 委員 그러면 그 제안을 받은 이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회의는 몇월 며칠에 몇 번 있었는지 밝혀 주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며칠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추석 전이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德龍 委員 9월 4일에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오늘이 17일인데, 이 중대한 문제의 제안을 받고 무려 2주 동안에 안보관계장관회의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측에서 파견을 요청할 때 특정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론 수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적시에 검토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容甲 委員 장관! 미국에 가서 장관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容甲 委員 원래 예정에 있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원래 제가 예방 신청을 했습니다.

○金容甲 委員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례적인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정부의 6자회담

에 관한 견해,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대통령의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金容甲 委員 그런데 과거에도 미국에 가면 부시를 만나서 6자회담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만 그랬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과거의 예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시다……

○金容甲 委員 아니, 장관이 미국 갈 때마다…… 안 했지요, 이번에 처음이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미국을 세 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체니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회담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金容甲 委員 우리가 추측컨대 이번 이라크 2차 파병요청은 부시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면서 대화는 어떻게 했든 파병요청을 암시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盧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을 한 것으로 봐서 그때 요청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장관 조금도 언급이 없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金德龍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9월 9일 장관급 회의가 있었고, 9월 16일 NSC 실무조정회의가 있어서 논의해 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파병요청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었고, 파월 장관을 만날 때도 전혀 그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본적으로 부시 대통령이 면담을 해준 이유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항, 바로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commitment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재확인,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주었던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여 개 국가에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외상들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랬을 텐데 특별히 저를 차별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만나자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金容甲 委員**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말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없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라크 파병문제가 밝혀지면서 보·혁 갈등이 전쟁이 붙는 것처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아까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의 입장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눈치를 봐가면서 어느 쪽을 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도 없이 국민 여론을 따라서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파견하지 않고, 국민이 찬성하면 파견하고, 양립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양립되었을 때는 지난번처럼 손놓고 있다가 야당이 해주면 파병하고, 나중에 가서 명분 없는 파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를 보니까 柳寅泰 수석이 반대했던데, 신문 봤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신문은 보았습니다.

○**金容甲 委員** 청와대는 반대 입장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잘 모르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대통령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반대 입장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입장 같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 현재는 반대다, 찬성이다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아까 장관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9월 4일 요청을 받은 이후 두 번의 회의, 안보관련장관회의와 NSC 실무회의를 했다고…… 국제 관계의 변화와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구먼.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러면서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德龍 委員** 국제정세의 변화와 여론의 추이 그리고 국가이익을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 현재 두 번 회의를 거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구먼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富榮 委員**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9월 4일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허버드 대사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李富榮 委員** 그때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닙니다.

○**李富榮 委員** 누구를 만났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富榮 委員** 국방보좌관을 만났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潘基文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富榮 委員** 그러면 9월 4일 미국 정부가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허버드 대사가 가서 함께 만났다면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처드 롤리스가 부시 정부의 핵심 실력자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방부, 국무부가 함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李富榮 委員**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장관께서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말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워싱턴에 있는 동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李富榮 委員** 그러면 장관께서 파월 장관이나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만나시지 않았겠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국방부 관계자는 월포 위츠 부장관 한 사람 만났습니다.

○**李富榮 委員** 그러면 이 일을 미 국방부와 미 국무부를 대변하는 두 사람이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장관께서 거기 가셨는데 이 얘기를 한 마디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글썄요.

○**李富榮 委員** 미국으로서는 지금 부시 대통령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라크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데도 유럽이든지 여러 나라들이 응하지 않고 있고, 유엔의 깃발을 써야 될는지 미국 주도로 해야 될는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은 입장에서 외교부 장관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는 이 두 사람이 와서 통보했는데,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미 국방부나 국무부 쪽에서 그 얘기를 한 마디도 논의 안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납득이 안 가실지 모

르겠지만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李富榮 委員 이 얘기는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바쁜 일정에 장관을 면담하고 이런 것을 봐도 장관이 거기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국민들에게 얘기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 가겠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정부와 정부 간에 의사전달 채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 갔을 때 북한 핵문제에 관한 1차 6자회담이 끝난 직후의 상황이었고, 저에게 집중했던 얘기는 그 문제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 쪽 정부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관심 사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李富榮 委員 좋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다는 NSC 논의 중에 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미 제2사단의 철군 문제와 우리 파병문제를 결부시키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李富榮 委員 그러면 청와대에 리처드 롤리스 부차관보와 허버드 대사가 방문했을 때도 潘基文 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까? 주한 미군 2사단의 철군과 우리 파병문제를 연계시키는 문제 말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富榮 委員 분명히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李富榮 委員 그러면 그 보도는 근거 없는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富榮 委員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와대 당국자들도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潘基文 보좌역이나 국방보좌역 이런 분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와 柳寅泰 정무수석 얘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정부 쪽에서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혼란을 부채질합

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이 문제를 다루는 당사자는 柳寅泰 수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富榮 委員 그렇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일정하게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당국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점에 관해서 장관 말씀해 보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요청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며칠 후가 되겠습니다. 어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당국자가 배경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李富榮 委員 그러나 정부당국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다양하게 찬반 색깔을 띤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1963년, 1964년 월남 파병 때도 그 문제로 인한 엄청난 소요들이 분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파병은 했지만 그때 우리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이 서로 구구각각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柳興洙 委員 장관 나도 한 마디 질의하지요.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정보병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투병인 것은 맞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전투병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투를 위해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치안 유지의 목적을 위해서……

○柳興洙 委員 그러나 지금 이라크의 사정을 본다면 말은 치안유지지만 시가전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있고, 게릴라전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병 부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투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전투병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전투병이라는 것을 명백히 합시다.

장관이 규모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셨는데 정부 단위에서 일정한 규모를 예상하지 않고 논의가 막연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표시는 안 했지만 정부에서 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정부에서 요청해 왔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를 두고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맡아 가지고 독자적으로……

○柳興洙 委員 미국의 요청 범위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이네요.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시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柳興洙 委員 사단 규모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입장 정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柳興洙 委員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는 입장 정리는 규모가 전제되어야 될 거예요. 규모도 하나의 큰 요소이기 때문에……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마 그 문제도 동시에 고려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는 식의 숫자로……

○柳興洙 委員 좋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숫자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부로서는 아직 그것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느 시기에 해달라는 시기를 못 박은 바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개월, 연내에는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柳興洙 委員 APEC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까지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 만날 때 이야기해 준다는가 그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柳興洙 委員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柳興洙 委員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장관께서 미국 갔을 때 이례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가서 면담하고 하는 상황에서도 논의는 없었다, 파병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다, 아마 없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미국의 고도의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자회담이라든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때 느낌으로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굉장히 호의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 자체가 파병에 대한 하나의 압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감은 못 느끼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柳興洙 委員 외교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한미 관계는 수십 가지의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때로는 사안과 사안을 분리해 가지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전부 연계시키기 시작하면 음모론에 빠지든지……

○柳興洙 委員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상식이 좀 잘못되었겠지요.

그다음에는 인도, 파키스탄 등 12개국에 파병 요청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10여개 국가라고……

○柳興洙 委員 그 중에서 파병에 동의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도 다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興洙 委員 찬성한 나라가 아직 한 나라도 없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몇몇 나라는 유엔결의안 통과를 전제로 해 가지고 파병하겠다고 답을 내린 국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興洙 委員 유엔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柳興洙 委員 이 문제에 관해서 유엔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도 파월 장관과 P5 외무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고,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 수렴은 있었습시다라는 남아 있는 의견 격차가 어느 정도로……

○**柳興洙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전제한 바와 같이 또 논의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사실관계만 질의했습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존경하는 李富榮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문에 파병을 못 하면 미국 2사단을 빼겠다, 뺄 수밖에 없다 하는 톱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였다고 장관이 답변하셨는데……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습니다.

○**柳興洙 委員** 신문의 오보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두는 정부인데 왜 소송 안 해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글썽, 모르겠습니다.

○**柳興洙 委員** 金文洙 의원과 소송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소송해야지,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커다란 오보를 소송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대통령에게 소송하라고 건의하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알겠습니다.

○**柳興洙 委員** 이상입니다.

○**金德龍 委員** 장관, 안보현안과 연계라는 표현이 혹시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하면서 바로 이런 안보현안과 연계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金德龍 委員** 내가 알기로 이런 표현이 청와대 특히 안보관련 고위층으로부터 나와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측 제안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보현안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충족되면 파병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마도 제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참 재미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미리 연계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지난 4월에 우리가 비전투병을 파병할 때에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그런 모호한 태도, 눈치보기작전, 이중플레이를 또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하고 안보관련 고위층 참모들은 안보현안과 연계 이야기를 하고 전혀 현안과 관계없는 정무수석은 파병불가 입장을 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면 국민여론의 추이를 본다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이중플레이를 하는, 지난 4월에 사실은 결정해 놓고 국민선택은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국회와 야당이 결정하게 해서 功은 정부가 가지고 또 비난은 국회와 야당한테 돌려주는 이런 이중플레이를 지금도 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 그 얘기에요.

미국이 제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보현안과 연계라는 표현이 보도될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안보관련 참모 입에서 나왔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결정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결정되지 않았다, 신중히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중플레이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가지고 미국과 딜(deal)을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옛날에 했던 이중플레이를 계속 하려느냐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 봐요.

○**金容甲 委員** 장관, 답변 중에 무슨 말이에요? 하지도 않은 말이 이렇게 서로 오가고 하니까 '내가 미국의 당국자라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장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명확한 태도도 없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문제가 갈등으로 비치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나고 우리가 질의하는데 장관이 그런 답변하면 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청 받은 지가……

○**金容甲 委員** 그렇더라도 장관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孟亨奎 委員**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라크파병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을 때

에 파병여부의 결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국론분열이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가파병 문제를 놓고 국민들 간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이 비서관은 판 소리하고 또 저 비서관은 이상한 소리하고 그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국론분열이라는 엄청난 홍역을 국내에 가지고 올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국론분열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렴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孟亨奎 委員**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가 국제관계의 변화나 여론수렴을 하고 국가이익을 보아 가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파병을 하든 파병을 하지 않든 어떤 것이 국민인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파병을 하기로 했으면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파병을 안 하기로 했으면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정부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9월 4일 정식으로 요청이 왔는데 지금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정부는 틀림없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요청을 받은 지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서 또 국회 쪽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孟亨奎 委員**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장관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파병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파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孟亨奎 委員** 조금 전에 유엔결의안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 거기에 파병하게 된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적인 상황을 전제해 가지고 제 의견을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孟亨奎 委員** 유엔결의안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이니시에이트(Initiate)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이니시에이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孟亨奎 委員** 지난번 미국에 가셨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없었습니다.

○**孟亨奎 委員** 좋습니다.

○**河舜鳳 委員**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9월 4일 미국이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이 처음 공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舜鳳 委員** 이것이 뭔가 프로세스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추석연휴가 일주일이나 있었습니다.

○**河舜鳳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국익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각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 같다 이거예요. 막연하지만 미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은 전투병력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뒤따른 미군 제2사단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형태를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국적군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한 문제를, 물론 그동안에 추석이라는 연휴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정부 관계당국 간에 협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河舜鳳 委員** 그런데 중간의 과정을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신중을 신중을 거듭하셨다, 정부수석은 반대다, 외교안보보좌관은 안보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주한미군 제2사단하고 관련되었다는 어떤 점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협박용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뭐가 뭔지 지금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요는 제가 시기적으로 오늘 하는 것이 좋다, 내일하는 것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마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나라를 대대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이 기본방침이라도 확정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保革 갈등을 부채질하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河舜鳳 委員** 그동안 관련 장관이나 당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NSC회의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더구나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함부로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탁은 최대한 빨리 미국의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또 그 조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河 委員** 지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장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 지금 국민여론 뻔한 것 아닙니까? 반대, 찬성, 평행선입니다. 합일점에 도달한다고 기대합니까? 장관은 답변해 보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평행선일 수도 있겠습

니다. 다마는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놓고서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진정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마는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金鍾河 委員**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지난번 비전투원 파견 때도 여론이 합의 안 되었습니다. 딱 나누어진 상태에서 국론을 분열시켜 싸움만 붙여놓고, 그것도 대통령이 덜렁 던져 놓고는 정권을 책임질 여당에서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반대해야 될 야당이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론수렴 한다고 하는 것은 밤낮 수사 말장난이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뻔합니다. 반은 반대, 반은 찬성, 무엇을 여론수렴 합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책임은 정부입니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국익을 보아서 파견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요. 이중플레이예요. 국민을 앞에 놓고 장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제발 여론수렴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정부의 입장을 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틀림없이 심중판구는 정부가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 여론수렴의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검토가 없었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과정을 안 거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사에 시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요청받은 지 2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金德龍 委員**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장관께 질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하라든지 조속히 결정내리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든가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가’든 ‘부’든 결정을 하면 결정한 이후 국민을 설득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제정세의 변화를 본다고 그랬다면 그것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

요한 조건 중의 하나로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徐廷和 위원장, 李昌馥 간사와 사회교대)

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단순히 국민의 여론추이만 볼 것이 아니라 파병하던 안 하든 간에 우선 현지조사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요청한 미국과 우리 역할과 우리 주둔지가 어딘지를 충분히 사전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하기 전에 현지조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나는 도리어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의 추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파병 쪽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바람잡기 위해서 대통령은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무수석은 안 된다는 불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안보현안 연계하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秋美愛 委員 장관님, 아까 보고 시에 潘基文 보좌관을 찾아와서 미 국방부 부차관보 리처드 플리스씨와 국무부 부차관보 라플레르씨가 토마스 허버드 미국대사와 함께 한국 정부 측에 파병 의향을 물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파병에 대한 공식요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라플레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秋美愛 委員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부연했는데요.

그러면 문서를 들고 와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구두요청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구두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미국 행정부의 책임자가 서명한 문건도 들고 오지 않고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요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측이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비공식적인 의사타진 정도, 실무자들끼리 상의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왜 장관님은 공식요청이라고 하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사가 동석했고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秋美愛 委員 미국 대사가 미국 행정부 책임자의 문서도 없이 구두로 의사를 타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공식요청이라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굴종적인 외교 자세라고 보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외교적인 관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 방법도 있고요……

○秋美愛 委員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을, 제가 볼 때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지요. 그것을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께서 공식요청이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은 부끄럽네요. 낮이 화끈거리네요.

만약 그것을 공식이라고 보신다면 이것은 미국 측의 외교적 무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미국 측이 외교적 무례를 범했거나, 아니면 우리 자세가 너무 굴종적이라고 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측에서 공식요청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秋美愛 委員 공식요청이라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이해를 해 준다 치더라도 적어도 미국 행정부 책임자가 서명한 문건이 있어야 되고 파병에 대한 정당한 명분, 파병 시기, 파병 지역, 파병 규모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있어야만 그래도 나라와 나라의 외교적 예의를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아무리 대사가 동행을 했다 치더라도 고작 실무자가 와 가지고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혹시 파병해 줄 수 있느냐' 한 것을 공식요청이라고 국회에 보고한다는 자체가 너무 굴종적인 자세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관례와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방법을 고려할 때 그동안 충분히 있었고 양해될 수 있는……

○秋美愛 委員 그동안에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굴종적이었다는 말씀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왜 굴종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굴종입니까?

○**秋美愛 委員** 미국 실무자가 와서 의사타진한 것을 가지고 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공식요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들께서 파병 규모, 시기, 근거, 명분, 다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내부적인 실무자 선의 상의라든가 동맹국에 대한 의사타진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식의 논리라면……

○**秋美愛 委員** 그래서 우리 국민 여론에 한번 흘려 가지고 국민 반응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을, 상의한 정도 가지고 공식요청이라고 그러면서 초반부터 국회에 와서 파병 규모, 지역,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공식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니, 미국 측에서 공식요청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공식요청이 아니라고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秋美愛 委員** 적어도 미국 국방부……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논리라면 부시대통령이 나를 만난 것도 미국 측에서 굴종입니까? 그것은 더한 굴종이라고 보는데요.

○**秋美愛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일국의 외무장관을 무엇하러 만나십니까?

○**秋美愛 委員** 상대국의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상대국의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려면 적어도 미국 행정부 책임자의 서명 문서 정도는 들고 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성을 모르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측에서 공식요청이라고 얘기를……

○**秋美愛 委員**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말장난 안 합니다. 누가 할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말장난을 합니까?

○**秋美愛 委員** 그러면 장관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할 말이 없으시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는 굴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굴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미국사람을 대해본 적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일방적인 통보만 있는 상태이지 파병 규모나 시기나 파병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공식요청이라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秋美愛 委員**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미국 행정부 책임자가 서명한 문서 정도는 들고 와야 된다 그런 지적이에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우리도 이것만큼 중요한 공식적인 메시지를 그쪽에 그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양해합니다. 그것이 외교 관례입니다.

○**秋美愛 委員** 지금까지 외교 관례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남의 나라에 보내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관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를 해서 구두상 국빈 방문을 상호 협의한다든지 그런 문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매사 매끄럽게 좋은 일로만, 추상적인 인사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일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저도 우리 국민들의……

○**朴源弘 委員** 위원장님,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십시오. 끝없는 공방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지요.

○**委員長代理 李昌馥** 본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꼭 하실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秋美愛 委員** 예.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러면 파병에 대한 명분을 무엇으로 잡아서, 파병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

민을 설득하시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파병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답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秋美愛 委員** 장관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국민한테 던져 놓을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시라면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장관이 견해가 없어서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밝히고……

○**秋美愛 委員** 물론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보신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미국 측에서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에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주 초반에 미국의 승리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라는 사실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원래 우려했던 대로 WMD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쟁 명분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입이 있으나 사실 할 말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 종식 후 게릴라전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글썽요, 위원님이 이라크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즉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에서 ‘명분이 있다, 없다’ 단답 형식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의 시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해 온바입니다.

전쟁의 명분을 상실한 부시 대통령의 국내의 정치적 인기도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에 대해서 아주 소모적인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것을 왜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병에 대한 명분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

변하실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여론 추이와 국제관계, 국가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왔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지 어떤 단답형을 강조하는 게 아니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제 의견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될 것 같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장관께서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인 보고를 안 하시는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바에 의하면, 정보병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秋美愛 委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秋美愛 委員**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언론은 여단 규모에서 사단 규모까지 언급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여단이나 사단이나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요청해 온 바가 없고 폴란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단이나 사단 또는 어떤 규모로 얘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단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秋美愛 委員** 그러면 폴란드형 사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무장병력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쪽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秋美愛 委員** 장관께서 죄다 답변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상의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상의하시고 한다면 답변 준비도 안 해 오셨다는 거예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답변 준비를 안 해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해 드릴 시점이 지금은 아

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공부를 계속 하십시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공부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전쟁 직후에 전투병 파병은 일단 반대하면서 비전투병, 그러니까 의료병과 건설 공병단 정도는 파병에 응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전후 이라크 재건 명분 외에는 다른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전투병까지 추가로 파병한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에 동맹국도 무조건 끌어들이는, 동맹국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파병한 정도는 전후 복구 처리에 적절한 정도, 적절한 규모, 적절한 명분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추가적인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여론이 90% 이상이다 할 때에는, 만약 국익을 위해서 그래도 파병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상입니다.

○柳在乾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워낙 추가 파병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자와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경청해 가지고 정부가 이 중요한 문제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이나 金德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나 정부 당국에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늦춰 가지고 실리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신중하게, 100%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국익을 앞장세워 가지고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나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종합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시고,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기를 긴급 동의합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염려되는 것이, 정부 당국자라든가 청와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장관께서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崔秉烈 대표께서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국회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 아주 돋보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어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崔秉烈 대표를 수행한 어떤 분이, 우리가 추가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 2사단을 이라크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 있는 것 같다고 전해 왔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추측과 염려,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아니면 한반도 전문가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내 비공식 라인의 검증되지 않은 기류라든가 가십, 추측, 개인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정책 대안으로, 호들갑 떠다는 표현을 예전에 어떤 사람이 했지만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론되는 문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미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외교 당국자들의 외교의 폭을 줄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정부 당국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발언인가…… 동료 위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장관께서 내용을 다 알면서도 시간을 맞춰서 답변드리겠다고 강력하게 그러는 태도가 조금 언짢아보였습니다. 그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 당국자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전쟁이 실패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700~800명의 우리 군인들이 가 있는데 그 몇 개월 동안의 평가가 어떤지, 우리의 손익은 무엇인지 예리하게 분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명분과 실리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추가 파병을 할 때 국가 가치는 어떤 것인지, 정책 명분은 무엇인지, 한미 동맹이나 6자회담 전망에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인지, 경제 이익과 에너지, 안보까지도 감안하는……

이번에 張永達 국방위원장께서 다녀왔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우리 분과하고 다른 곳의 위원장이 시지만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분의 얘기를 상당히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자위대 파견을 위해서 답사반이 갔다 오고 또 가고 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국의 요청을 즉시 듣지 않았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수십 시간 얘기해도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위원장 얘기를 듣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昌馥 예.

金德龍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德龍 委員 장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장관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민 여론의 추이, 하나 더 보태서 국익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저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 그 답변이 지켜져야겠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까지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면서'라는 이야기 중 제일 큰 것은 아마 유엔 안보리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金德龍 委員 그렇지요?

또 국민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은 지금같이 찬반 의견이 평행선을 달러서는 안 되고 큰 흐름이, 국민 공감대가 결정이 된 뒤에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틀림이 없겠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 의미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협조를……

○金德龍 委員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평행선을 달리는 과정에서는 안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흐름이 결정된 뒤에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金德龍 委員 그다음에 국익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국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다 갖출 때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나 실리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국익을 고려하겠다고 분명히 명분과 실리가 맞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그런 것들이 배제되고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조금하게, 이미 결정 다 해 놓고 정치 플레이를, 일종의 이중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밝아야 될 절차를 충분히 밟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진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李昌馥 간사, 徐廷和 위원장과 사회교대)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비전투부대가 아니라 전투부대를 보내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계시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는 파병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쯤은 장관도 아시는 것이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과 이득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분과 실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마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익의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것을 판단하고 검토해 나가는 단계이지 아직 정부 입장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德龍 委員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문제가 완전하게 충족되었을 때 결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리면서 아까 장관이 한 공식적인 발언이 꼭 원칙으로 지켜져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廷和 朴源弘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源弘 委員 朴源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1차 파병 때 상당한 낙선운동의 위협을 받는 것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원칙대로 공개적으로 파병을 지지했고 또 결과적으로 파병이 되었는데, 장관께서는 1차 파병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1차 파병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朴源弘 委員 이번 2차 전투부대파병에 관한 장관의 입장표명 유보를 저는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분명한 제 입장을 밝히고 싶은데 장관께서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국익 우선이라야 하고 또 국민통합이 되어야 하고 국론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모순된 것 같지만 정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盧武鉉 대통령과 주변 어드바이저(adviser)들이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절대로 이중

플레이라든지 책임회피라든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라구요.

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인터넷 투표결과를 보면,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6대 4로 파병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투병 파병이라는 데 대하여서 국론이 파병반대 쪽이지 찬성 쪽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또 尹永寬 장관 같은 분이 소신 있게 국제정세 보아 가면서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파병에 완전히, 거의 무조건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미 참전국의 대열에 섰습니다. 한 발을 내딛었는데 여기 와서 또 이번엔 '안 돼요.' 하기에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제적인 위신도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옆의 나라 일본도 신중론, 신중론 하지만 이미 고이즈미 수상이 재선되는 것이 확실하고 자신 있게 자기네 헌법구조 개정도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보낼 것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중국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겠지만 국제정세를 보아 가면서 그렇게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그런 단어를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라크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전투병력이라고 하기 보다는 치안유지부대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군사훈련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이 훈련을 그동안 충분히 못했다 하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실전상황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약간의 위험 부담을 지면서 치안유지를 하는 훈련상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동맹, 한미공조가 한국을 지탱하는 큰 축인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큰 필요 조건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아울러 주한미군과 관련된 한미안보 통상현안 등의 긍정적인 해결을 우리의 파병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 파병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대단히 효율적인 레버리지(leverage)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이익의 최고 단계인 우리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가는 정에 오는 정이고 오는 정에 가는 정이라고 국가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동맹관계를 맺었으면 계약입니다. 우리의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를 12번째 경제력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번 WTO 문제에서 보지만 개도국 위치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으니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 또 신의를 이번 기회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북한에다가 금강산 관광 비용 900억이라든지 비료 10만t을 9월 말까지 보내는데 320억이라고 하는데 폴란드 사단규모의 전투병력을 보내서 1년에 유지비가 한 500억 든다고 하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또 우리 민간기업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미국에게는 내밀히라도 확실히 보장을 받고, 10여 년 전에 일본이 돈 많이 쓰고도 별 실익이 없었던 과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확실히 받는 것으로 해서 참전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파병하는 것이 처음도 아니고 월남전 때는 제가 기억하지만 용병이다 멀서네리(mercenary)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의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인 발전을 한 것인데 이번 파병은 그보다는 훨씬 더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전파라는 커다란 명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라크의 치안상황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데에 일조를 해주면 우리 국익에 또 경제적인 면에서 또 한미안보동맹 면에서 커다란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아까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논점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朴源弘 委員** 고맙습니다.

○**金容甲 委員** 장관, 1차 파병 때는 정부의 파병안을 국회에 동의요청을 제출해 놓고 그때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았지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여론수렴의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金容甲 委員** 하여튼 여론수렴이라기보다도 정부안부터 먼저 국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찬반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명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아무 것도 결정 안 해 놓고 정부의 입장도 없이, 아까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국회에서 여론수렴해 달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金德龍 위원이 이중플레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관계기관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안보보좌관 측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柳寅泰 정무수석은 반대하고, 이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좋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정부안이 파견 쪽으로 결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柳寅泰 수석이 말을 하고 싶더라도 침묵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안이 전연 없다, 결정된 바도 없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 가면 저리 갈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실제로 정부안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앞서다 보니까 아까 朴源弘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이 앞장서면서 도리어 반대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로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 동의안만 제출하고 난 다음에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득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만일에 정부가 국익



과 한미동맹관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어차피 여론이 정리가 안 될 테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가 여론수렴을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서서 제일 먼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진보단체에 대한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과견하도록 여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면에서는 보혁갈등도 치유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정부가 과견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던져 놓고 뒤에 앉아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또는 과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렇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 같아서는 1차 과병안처럼 정부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설득을 하든지 반대하든지 해 주어야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河舜鳳 委員**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과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아시다시피 국정을 맡게 되면 때로는 국민을 위해서 고독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리 해야 됩니다. 여론과 배치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병의 찬반을 떠나서 근본적인 국정태도를 말한다, 나는 이렇게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정은 지지자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때로는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가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론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떳떳이 밝히고 자신 있게 설득하는 것이 국정을 맡은 진정한 리더십이고 용기다 하는 점을 장관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과병요청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히고 국민 앞에 정부가 내릴 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과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엔의 결의안이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과병하겠다 하는 조건부 과병안도 있

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핵문제와 우리나라 경제여건 그리고 한미관계를 고려해서 과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유보시켜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현재까지 정부가 유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 못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 못 하는 것은 대단히 무능한 처사입니다. 또 무책임한 정권만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당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외교와 안보에는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정권 들어서서 각종 현안마다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적 편가르기 조짐을 보이는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시민단체가 단체의 존립 목적과는 달리 각종 현안마다 일일이 나서면서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빈번합니다. 시민단체의 정치화·권력화와 함께 이미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지성의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야만과 폭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병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토론을 봉쇄시키는 획일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 와서 지켜 온 나라인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장관계서는 미국에서 이라크 과병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아까 장관 말씀대로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병제외의 보다 상세한 경과 규모 시기 비용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주무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인 柳寅泰 수석의 파병안 반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파병을 할 경우와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주한 미군 2사단을 이라크에 배치하겠다 하는 항간의 얘기들, 또 그와 같은 논의가 사실 있었는지 있었다면 파병을 안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사후대책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고, 오늘은 사실 결산심사 일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토론이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仁濟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병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하느냐 파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느냐를 지금 아무리 얘기해 봐도 나올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 외교부장관이 말씀드려야 할 대목은 정부의 검토를 어떻게 촉진해서 언제쯤이면 정부가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셨나본데 제목이 '파병여부 조만간 결정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관의 뜻이 정부의 결정은 빠를수록 좋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다른 보도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대체적인 뜻은 서두르지 않겠다,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세요.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제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된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기자가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기사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시기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李仁濟 委員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李仁濟 委員 거기서 아마 각 부처가 기초적인 보고를 하고 토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일 NSC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토론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李仁濟 委員 그리고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파병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싶은데 유엔의 입장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미국 행정부에서는 23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아마 그때쯤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李仁濟 委員 23일 전후해서 유엔의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런데 그 결의가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그때까지 P5 국가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합니다.

○李仁濟 委員 그러면 장관은 어떤 입장이에요? 불확실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파병여부를 신중하게 그러나 속도를 붙여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고 정부의 결정을 놓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파병을 하든 않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과정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불리 빨리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론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비판을 역설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한 논의기간 그리고 수렴기간을 거쳐서 조만간 파병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내려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스케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논의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李仁濟 委員 물론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닌데

요. 그러나 여론에만 맡겨 놓아서 안 됩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물론입니다.  
**○李仁濟 委員** 이것은 국가이익이 결정의 핵심  
 아납니까?

그런데 국가이익이 이것이다 하면 국민의 감성  
 적인 여론이 어찌됐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입  
 장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셨지만 지금 솔직하  
 게 얘기해서 온통 국민 여론이 파병 찬반을 놓  
 고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냉정  
 하게 국가이익 여부를 놓고 이성적으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대치양상  
 으로 자주 변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는 상당히 전투적이고 반미에 뿌리를 두고서 여  
 론에 불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이익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최고의 정보력과 분석력과 예측력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요청을 받은 지도 9월 4일 받았다고 하니  
 까 열흘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라도  
 검토를 촉진해 가지고 국가이익이 무엇이다 그  
 러니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겠  
 다 이렇게 결정해 놓고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  
 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이런 책임 있는 모  
 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아  
 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아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이라는 표현  
 을 안 했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조만간이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  
 지고, 제가 아무렇게나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빨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늦출 때 얼  
 는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감안  
 하셔서 책임 있게 검토를 촉진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뒤에 우리 국회가 빨리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계속)**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외교통상부소관(계속)**

**3. 2002회계연도기금결산(계속)**

**가. 국제교류기금(계속)**

(16시10분)

**○委員長 徐廷和** 다음은 국제교류재단의 기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首席專門委員 姜長錫**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원본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요  
 약분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2002회계연도 외교통상부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의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748억 9300만 원  
 보다 13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879억 1800만 원  
 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545억 7300만 원보다 333  
 억 45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수입 계상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  
 습니다.

이처럼 초과수납액이 당초 세입예산액의 61%  
 인 333억 4500만 원이나 발생한 주 원인은 수입  
 대체경비수입으로 되어 있는 여권 및 사증발급  
 수수료 수납액이 예산액과 대비, 348억 4400만  
 원씩이나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의 초과수납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초과수납비율  
 61%는 전년도인 2001회계연도의 42.3%보다도 약  
 17.7%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액과 수  
 납액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였  
 다고 보이는바 그 개선이 요망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한 연례적 이·전용 발생입니  
 다.

2002년도에 외교통상부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  
 을 위한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총액은 87억  
 9116만 원으로 이는 외교통상부 이용 및 전용 총  
 액 154억 1604만 원의 5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  
 다. 특히, 2002년도에는 그 규모가 2000년도,  
 2001년도 이·전용액의 약 4배 이상에 달하고 있  
 는바, 그 주요원인은 2002년 12월 현재 외교통상  
 부 총정원 대비 초과현원이 32명 발생한 점과  
 2002년 1월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의 개정으로